

‘지혜의 여유’를 즐겨라

에듀후 입시진학컨설팅 대표 이현우

‘지혜의 ‘여유’라는 말이 있다. 그 뜻은 공부하는 이유를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표현 한 것이다. 사람들은 뇌에 저장한 것의 극히 일부분 밖에는 끄집어내질 못한다. 그러나 뇌 에 수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.

사람은 배우고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뇌에 축적한 후에 끄집어 내지 못할 뿐인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‘여유’라고 표현되는 것이다. 즉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정보는 얼마 되지 않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가 바로 꺼내 쓸 수 없는 형태로 뇌 에 저장됐을 때, 전자에 대한 후자의 비율의 크기를 ‘여유’라고 정의하는 것이다. 바로 꺼내 쓸 수는 없지만 약간의 수고와 기회를 제공하면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이고, 이것이야말로 지식을 갈구하는 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.

인간의 두뇌에는 불연속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, 이런 관용성 중의 하나를 ‘연상(聯想)’이라 하고, 연상은 여러 개의 다른 것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 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, 이런 능력은 사물 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. 이러한 것을 ‘지혜의 깊이’라고 말한다.

자신이 창조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해결책은 창조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 는 것인데, 창조적 능력을 곧 발효된 지혜라 한다면, 먼저 지식을 쌓고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. 각설하고, 부단히 익히고 생각하는 것 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것이다.

아주 평범한 수학자, 그러나 끈기 하나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드상까지 받은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남들이 보기에는 지독할지 몰라도 그 스스로는 즐겁고,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창조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, 창조란 과연 무엇인지, 왜 매번 잊어버리면서도 또 배워야 하는지의 해답을 자연스럽게 얻게 됐다고 한다.

‘공부하는 자는 배운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’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고 잊고 있었던 것 을 새로 또 배우고 배운 것 사이의 연계를 만들어 보며, 학문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어느덧 ‘지혜의 여유’를 통한 ‘공부통달이란 도’의 경지에 이른 자신을 발견 하게 될 것이다.